

2016.03.04

# 주간

##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 Contents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TV공장 폐쇄...일부 설비 베트남 이전
- ▶ 베트남서 인수합병 바람 세진다...FTA 등 시장개방 확대 효과
- ▶ 롯데백화점, 베트남·인니서 중소 협력사 구매상담회
- ▶ 신한은행 '베트남 씨니뱅크' 회원 1만명 돌파
- ▶ 국내 中企, 40억원 규모 베트남 수질자동측정 사업 수주
- ▶ 거래소, LS전선 베트남 법인 국내 상장 추진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EU·베트남, 2018년 FTA 발효...커지는 베트남 투자 '러브콜'
- ▶ 외국 지분 상한 철폐 기업들 주가 상승,"프론티어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 ▶ 베트남 식탁에 펼쳐지는 외국산 고기, 생산 가격과 품질에서 국내산 열세
- ▶ 하노이에 2억 달러 Aeon Mall 추가 건설
- ▶ 노동허가서 없는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출국

### ◆ 베트남기업 동향

- ▶ 동나이 성 지하수 개발 인허가 동결
- ▶ 정보통신업체 FPT와 후지츠(Fujitsu)그룹 최첨단 정보 기술 통해 야채 생산
- ▶ 중앙은행, 신용기관 주요 통계지표 발표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호치민 시 버스 노선에 천연 가스 차량 도입, 이용자 유치에 기대
- ▶ 총리, 2016년 GDP 성장률 목표 +7%로 상향 수정 지시
- ▶ 연초 2개월 소매 매출액 587 조 VND, 전년 동기 대비+9.7% 증가
- ▶ 개정 형사법, 불륜 상대와 중혼, 동거에 최장 3년 금고형
- ▶ 노바이 라오카이 간 고속 도로와 사파 간 도로 건설 안전 착공
- ▶ 베트남: 국내 시장은 봉제 산업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 ▶ 베트남:남부의 기업들 설 휴가 후 귀향으로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
- ▶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중앙 은행에 대출 규제 재검토 요구
- ▶ 탄력받는 베트남 경제...올해 성장률 목표 7%로 상향
- ▶ 염해로 벤제 성 공단에서는 생산 용수 부족, 식품·수산업 큰 타격
- ▶ 2월 전국 CPI 전월 대비+0.42%, 테트용 구매력 증가로
- ▶ 화빙(Hòa Bình)성, 투자자 유치 위해 50헥타르 토지 준비
- ▶ 짜빈 풍력 발전소 기공식
- ▶ 지원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정책 안내
- ▶ 베트남 정부 자동차 산업 개발 정책 발표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TV공장 폐쇄...일부 설비 베트남 이전

- 삼성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TV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일부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김
-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 세렘반 지역에 있는 연간 200여만 대 생산능력의 TV 공장을 조만간 문 닫을 계획임
- 1995년 세워진 이 공장의 근로자는 약 600명임. 삼성전자는 이 공장의 설비 일부를 베트남 호찌민 동부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짓는 소비자가전 복합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2020년까지 조성되는 이 복합단지에는 초고해상도의 SUHD TV와 스마트 TV 등 TV 생산시설을 시작으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 설비가 설치됨
- 삼성전자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액을 20억 달러(2조 4천 730억 원)로 애초 계획보다 6억 달러(7천 419억 원) 늘려 잡음
-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TV 생산을 중단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을 가전제품 생산 거점으로 삼을 계획임

\* 출처: Yonhapnews, 02.29

#### 베트남서 인수합병 바람 세진다...FTA 등 시장개방 확대 효과

-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29일 베트남 시장조사업체인 스톡스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에서 이뤄진 M&A 규모는 341건에 52억 달러(6조 4천 615억 원)로 전년보다 건수는 23.1%, 금액은 9.7%가 각각 증가함
- 이 중 98건의 M&A가 홍콩, 태국, 일본, 한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함



- 특히 부동산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20 건, 16 억 달러(1 조 9 천 881 억 원) 규모의 M&A 를 성사시킴
- 베트남 경제가 지난해 6.7%의 고성장을 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소유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작년 말 동남아시아(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베트남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으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M&A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는 섬유·의류를 비롯한 제조업종의 M&A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됨
-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이 장점인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 정부가 올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폐지하고 국영업체의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M&A 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지난해 베트남 M&A 포럼은 현지 M&A 규모가 2014~2018 년 총 200 억 달러(24 조 8 천 52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출처: Yonhapnews, 02.29

### 롯데백화점, 베트남·인니서 중소 협력사 구매상담회

-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소기업 파트너(협력)사 해외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2 일 밝힘
-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 파트너사를 위해 롯데백화점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이번 구매상담회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함
- 롯데백화점은 작년 12 월 28 일부터 지난 1 월 7 일까지 해외 구매상담회에 참여할 파트너사를 모집해 총 20 개 회사를 선발함
- 이들은 롯데백화점 대외협력실 직원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과 구매상담회를 위해 지난달 28 일 동남아로 출국함



## 대한상공회의소

-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 일 호찌민에서 진행된 구매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계약이 총 120 여건 이뤄짐
- 베트남 무역진흥기관인 비에트레이드(Vietrade)가 축사를 했으며 VTC 와 FNBC 등 베트남 현지 방송사도 상담회를 취재함
- 오는 4 일에는 자카르타에서 구매상담회가 열림. 구매상담회에 참여한 이학성 가온앤 대표는 "올해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드림플라자에 입점해 백화점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며 "이번 해외 구매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상담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함
- 이선대 롯데백화점 대외협력실장은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롯데백화점이 진출한 해외 국가에 중소기업들이 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함

\* 출처: Yonhapnews, 03.02

### 신한은행 '베트남 써니뱅크' 회원 1만명 돌파

- 신한은행은 글로벌 모바일 전문은행 서비스인 '베트남 써니뱅크(Sunny Bank)'가 지난해 12 월 출시한 지 2 개월 만에 가입자 1 만 명을 돌파했다고 1 일 밝힘
- 써니뱅크는 베트남에서 신용카드와 대출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 외에 한류, 패션, 문화 등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사업모델임
- 써니뱅크는 현지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젊은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함
- 신한은행은 흥행에 힘입어 앞으로 현지 가맹점 DB 업체와 제휴한 플랫폼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등으로 상품을 확대할 계획임
- 또 베트남에 진출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음
- 신한은행은 "베트남 써니뱅크 가입고객의 90%가 20~30 대 젊은 층으로, 입소문을 통해 하루 가입자 수가 1 천명을 넘기도 했다"며 "신한은행의 아시아 핀테크 구축 전략의 성공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Yonhapnews, 03.01

### 국내 中企, 40억원 규모 베트남 수질자동측정 사업 수주

○ 국내 중소기업이 베트남 수질자동측정망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업체인 비엘프로세스가 베트남 자원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질자동측정소 측정장비 및 IT 장비 구축사업’ 국제입찰에서 사업수행자로 지난달 22일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투자해 2012년부터 6년간 진행되는 ‘베트남 산업단지 오염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최초의 광역단위 수질자동측정망(AMS)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약 40억원(330만 달러)임

○ 비엘프로세스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번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면 1년 동안 베트남 전역에 걸쳐 총 17개의 수질자동측정소를 건설하게 됨

○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환경부의 베트남 해외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지 실적을 쌓아 국제입찰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비엘프로세스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 베트남 타이응웬(Thai Nguyen) 지역에 진출했으며, 2015년 타이응웬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함

○ 이외에도 베트남 유관기관과의 관계 구축, 현지 수질자동측정망 사업 동향 분석, 현지 환경산업 투자설명회 참석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신뢰를 구축해 이번 국제입찰을 성공적으로 수주함

○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수질자동측정장비를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지난해 제정했다. 국내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와 같은 수질자동측정망을 도입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이번 베트남 최초의 전국 단위 수질환경측정망 사업 진행자에 국내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내 기술이 베트남 수질측정망 시장의 첫 표준 모델을 선점하고 향후 현지 사업 확장도 수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Etoday.co.kr, 03.01



**거래소, LS전선 베트남 법인 국내 상장 추진**

-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LS 전선 베트남 법인인 LS 전선아시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고 29 일 밝혔
- LS 전선은 오는 3 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6 월중 상장을 완료할 계획임
- LS 전선아시아는 LS 전선이 베트남 소재 LS-VINA 와 LSCV 상장을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다. LS 전선이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주로 저압케이블과 고압케이블 등을 제조하며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886 억원, 211 억원임
- \* 출처: Etoday.co.kr, 02.29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EU·베트남, 2018년 FTA 발효...커지는 베트남 투자 '러브콜'**

-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임
- 3 일 베트남소리의방송(VOV)에 따르면 부 후이 호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유럽연합(EU)과 맺은 FTA 가 2018 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
- EU 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 개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작년 12 월 두 번째로 베트남과 FTA 를 체결했다. 양측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
- 베트남 입장에서 EU 는 중국에 이은 2 위 교역 상대방이다. 베트남은 EU 의 5 위 투자 상대국임
- EU 국가들은 베트남의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기술 중점 사업의 투자에 나서고 있음





- 니콜라 코넬리 유럽상공회의소 베트남 회장은 "베트남이 기업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라며 "그러나 국가 개발을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함
- 다자간 FTA 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베트남의 대외 개방 확대로 외국인 투자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5 년 기준 베트남의 월 최저 임금이 137 달러(16 만 7 천 원)로 중국의 54% 수준에 불과하고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이유임
- 세계 경제의 부진에도 올해 1~2 월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승인액)은 28 억 달러(3 조 4 천 176 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135% 증가함
- 2015 년 베트남의 FDI 유치액 228 억 달러(27 조 8 천 296 억 원) 가운데 29.6%를 차지, 2 년 연속 FDI 1 위를 기록한 한국의 투자 또한 작년 말 양국 FTA 발효를 계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규선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장은 "우리 기업이 섬유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03.03

### 외국 지분 상한 철폐 기업들 주가 상승,"프론티어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 외국 자본 베트남 기업의 100%출자를 인정하는 법령이 지난해 9 월에 발효 후 많은 기업에서 외국 출자 비율이 높아져 주가도 뛰고 있음
- 국가 증권 위원회는 주식 시장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더욱 개방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의 참가를 재촉하여 베트남의 포지션을 "프론티어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4 일 베트남 언론이 전함

#### ◇ 외국 한도 철폐로 주가 Up

- 수산 대형 VINHHOAN 수산은 22 일 외자에 대한 출자 상한선을 철폐한 기업으로서 상장 기업으로 3 개째가 되었다. 상한을 없앤 기업의 제 1 호는 2015 년 사이공 증권임
- 침구 업체 에버 피어 베트남도 이달 3 일 외자 상한선을 철폐하고 그 후 외자 비율은 49%에서 58%로 높아짐



○ 외국 제한 철폐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며, VINHHOAN 주가는 22 일 발표 후 호찌민 증권 거래소에서 0.9% 상승. 에버 피아 주가는 외국 상한 제한이 있던 때와 비교하면 32% 대폭 상승임

○ 한편 투자 회사 호양후이 투자 서비스도 주식을 외국에 개방하는 절차를 완료할 예정. 또 대형 유업업체 비나밀크는 외자 비율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자회사 7 개사의 청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호찌민 시 증권은 보고서에서 외국에 대한 100% 개방은 2016 년의 큰 트렌드 시장에 더 많은 외국 투자 유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베트남을 "신흥 시장"으로

○ 주식 시장 개방을 과시하고자 국가 증권 위원회 위원장은 3 월 세계적인 주가 지수 "MSCI 지수"를 공표하는 미국 대형 증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과 회담하고 베트남을 종래의 동사 규정을 "프론티어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격상하도록 의뢰할 방침. 이 회사는 2013 년에는 외자 상한 때문에 승격을 거부했다고 함

○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카타르 주가 지수, 아랍 에미리트 아부 다비 증권 거래소 주가 지수는 함께 2013 년 6 월에 신흥 시장으로 인정된 지 1 년 후 38%나 오름

○ 신흥 시장이 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2014 년 1~9 월 주식 시장에 외국 유입액이 각각 42 억달러, 13 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2014 년 베트남 증시에서의 외국 매월액은 1 억 7500 만달러에 그침

\* 출처: Vinahanin.com, 02.28

### 베트남 식탁에 펼쳐지는 외국산 고기, 생산 가격과 품질에서 국내산 열세

○ 베트남 축산 협회(VHA)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 및 호주, 미국, 한국산 수입 고기가 베트남의 소매 시장에 넘쳐나 전국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베트남의 언론이 보도했함

○ 질이 좋고 싼 외국산 고기를 좋아하여 구입하는 베트남의 주부들은 그 이유로 특히 소비 기한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먹는 것을 들었다. 또 원산지가 명확한 식품을 택한다고 함

○ VHA 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고기 생산비는 국산품 보다 약 25~30% 낮아 1 킬로 약 20 만 동 하는 국내 고기 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음



- 농업·지방 개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의 돼지 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량은 각각 4 톤, 8 만 ~ 9 만톤이었다. 또 같은해 호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서 수입된 가축용 소는 20 만 마리에 달함
  - VHA 회장은 2~3 년 이내에 수많은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되고 수입품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베트남이 지난해 식용 고기 수입에 4 억달러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국가의 농업 발전을 생각하면 낭비 같다고 말함
  - 베트남 동물 사료 협회의 회장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해외 기업들과 겨루는 국내 축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VHA 회장의 생각을 지지함
  - 그는 베트남의 소규모 농가는 충분한 자금력과 농업 기술이 없어 국제 기준에 맞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함
  - 베트남의 농가는 지난 십 수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2.28

### 하노이에 2억 달러 Aeon Mall 추가 건설

- Aeon 사는 하노이 남 탕 룡(Nam Thăng Long) 공업 지역에 총 2 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 년 개장을 목표로 대형 마트를 건설할 계획임
- 부 흥 빗(Vũ Hồng Việt) 남 탕 룡(Nam Thăng Long) 공업 지역 관리 위원회 회장은 박 뜨 리엠(Bác Từ Liêm)군 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일본 최고의 소매 그룹인 Aeon 사가 Aeon Mall 대형 마트를 건설하기 위해 하노이 박 뜨 리엠(Bác Từ Liêm)군에 있는 남 탕 룡(Nam Thăng Long) 공업 지역을 조사했다” 라고 전함
- 회의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하노이에서의 두 번째 Aeon Mall 대형 마트 건설 계획은 총 투자금 2 억 달러, 베트남 화폐로 4 조 5 천억 동으로 예상됨
- 이에 앞서 Aeon Mall Việt Nam 의 사장 겸 CEO 인 코니시 유키오(Yukio Konishi)는 “Aeon 사는 2017 년 하노이에 두 번째 센터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알려진 바로는, Aeon Mall 측에서 적극적으로 각 절차를 추진 중이고 박 뜨 리엠군(Bác Từ Liêm)과 관할 기관에 2019 년 초에 대형 마트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업 지역 주변에 6 개 노선의 도로를 빠르게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함



## 대한상공회의소

○ 이에 박 뜨 리엠(Bác Từ Liêm)군 측에서는 “당국은 2016 년 내로 남 탕 롱(Nam Thăng Long) 공업 지역까지 한 단계 연장된 황 국 빗(Hoàng Quốc Việt) 노선을 완성할 것이고, 머 디아 찻(Mô địa chất) 대학과 팜 반 동(Phạm Văn Đồng)간 노선은 2016 년이나 2017 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타이 탕 롱(Tây Thăng Long) 노선은 2019 년에 개통 될 것이다” 라고 밝힘

○ 그 외에 남은 3 개의 노선은 넷 탄(Nhật Tân)다리-남 탕 롱(Nam Thăng Long) 공업 지역 노선, 쭌 언 딘(Xuân Đình)-투이 프 응(Thụy Phương)-남 탕 롱(Nam Thăng Long)노선, 그리고 반 띠엔 응(Văn Ti ến Dũng)-남 탕 롱(Nam Thăng Long)노선인데, 이와 관련 담당 기관에서는 “도시의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건설 계획을 가속화 할 것이다” 라고 전함

○ 한편, 이미 2015 년 11 월에 Aeon 사는 하노이 롱 비엔 군에 Aeon Mall Long Biên 대형 마트의 준공식을 가졌다. Aeon Mall Long Biên 은 총 2 억 달러 이상의 등록된 자본이 있는 Aeon 사가 베트남에서 3 번째로 지은 쇼핑몰이며 9.6 헥타르의 건설 면적과 4 층 건물을 포함해 총 12 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

○ Aeon Mall Long Biên 의 CEO 인 후루키 시게루(Shigeru Furuki)에 의하면 “평일에는 약 80,000 여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약 170,000 여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쇼핑몰에 방문한다”고 밝힘

○ Aeon 사는 2014 년 초에 정식으로 베트남에서 개장했지만 이미 2009 년, 즉 7 년 전에 이미 대표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 기간은 Aeon 사가 베트남 사람들의 소비와 쇼핑 취향에 대해 충분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임

○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전체 제품의 1/3 은 일본 제품, 1/3 은 베트남 제품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채우는 경영방안을 채택하고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한 경영 전략을 세움

○ 처음 베트남 시장에 등장하였을 때, Aeon 사는 호치민 시 띵 푸(Tân Phú)에 있는 On-stop shopping 을 모델로 하여 1 억 9 백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쇼핑몰을 세웠다. 그 후 Aeon 사는 빈 중(Binh Duong), 하노이 롱 비엔(Long Biên), 호치민시 빈 띵(Tân)에 쇼핑몰들을 건설함



○ 하지만 최근, 베트남 내 소매 시장을 피비 마트(Fivimart)가 30%를 점유하고 씨티 마트(Citimart)가 49%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Aeon 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게다가 피비 마트(Fivimart)는 북부 지역에 18 개의 체인점을 두고 있고 2020 년까지 전국 30 개의 매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씨티 마트(Citimart) 또한 하노이(Hà Nội), 호치민시(TP.HCM), 흥옌(Hung Yên), 냐짱(Nha Trang), 빈중(Binh Duong), 킌장(Kiên Giang)과 같은 베트남의 여섯 개의 지역에 30 개의 가까운 매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Aeon 사 역시 2020 년까지 예정된 계획에 따라 20 여 개의 대규모의 쇼핑센터를 베트남에 건설할 계획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노동허가서 없는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출국

○ 최근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규정한 노동법의 일부 시행세칙이 되는 11/2016/NĐ-CP 호 시행령을 제정함

○ 이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가, 외국인 관리자, 외국인 운영책임자, 외국인 기술자는 베트남에서 30 일 이하의 기간 동안에만 근무하거나 베트남 내에서의 1 년 총 근무일이 90 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그 외에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은 베트남의 WTO 가입 약속에 따라 기업 내 인사이동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베트남 기업 또는 기관에서 연습/실습하는 학생과 대학생,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여권 소지자를 포함함

○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자가 아닌 자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7 일(근무일)전에 노동보훈사회국의 (근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 년임

○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자는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적발된 일로부터 15 일(근무일) 내에 베트남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됨

○ 위 11/2016/NĐ-CP 호 시행령은 201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베트남기업 동향**

**동나이 성 지하수 개발 인허가 동결**

- 동나이 성 인민 위원회는 2월 23일 수자원 조사·개발·사용 및 지하수 불링에 대한 인허가 업무의 시정을 자원 환경국에 지도했다고 밝힘
- 새로운 방침이 마련되기까지 이들 활동의 신청 접수를 동결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 성 인민위는 국에 대해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하수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형태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개발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동국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성내에서는 86건의 신규 허가를 내고 30건에 대해 허가를 연장하고 있다. 2015년에 행한 80여 조직·개인에 대한 검사에서 38건의 행정 위반이 발견됨

\* 출처: Vinahanin.com, 02.28

**정보통신업체 FPT와 후지츠(Fujitsu)그룹 최첨단 정보 기술 통해 야채 생산**

- 이제부터 컴퓨터나 태블릿 등을 통해 원격 센서로 공기, 물, 비료 등을 조절해 토양이 필요없이 야채를 심고 성장시켜 재배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정보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야채 생산 기술은 정보통신업체 FPT(The Corporation for 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ogy)와 일본의 후지츠(Fujitsu)그룹의 협력 아래 베트남에서 처음 개발됨
- 지난 2월 24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보통신업체 FPT와 일본의 후지츠(Fujitsu)그룹의 스마트 농업 협력 센터의 개막식에서 정보통신업체 FPT의 경영 이사회 중 지아 빈(Truong Gia Binh) 회장은 “정보통신업체 FPT는 베트남 최고의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가의 농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또 중 지아 빈(Truong Gia Binh) 회장은 “현재 이 기술은 양상추와 토마토만 재배가 가능하지만 후에 두 회사는 새로운 농업생산기술을 선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 대한상공회의소

농업과 산업,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밝힘

○ 더불어 그는 “기존에 있던 개념들의 테두리가 사라지면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베트남 및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상징하게 될 것임

○ 정보통신 업체 FPT는 베트남에서의 스마트 농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 생산 라인 안의 개인 및 조직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힘

○ 스마트 농업은 Akisai 클라우드 프로그램 기술을 응용한 농업이다. 이것은 2012년 일본에서 후지츠(Fujitsu)사가 소개한 정보 기술을 적용해 재배, 가공 및 운송, 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 모델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농업 분야 내에서 가장 스마트하며 현대적인 기술임

○ 현재 센터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중간 크기의 토마토와 칼륨이 적게 함유된 양상추 등 2개의 생산모델을 온실 및 야채 공장에서 재배하면서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음

○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는 폐쇄된 환경에서의 완전한 원격 자동 제어로 해충을 방지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위한 재배자의 노력을 돕는 것이다. 특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상추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임

○ 토마토 역시 아이백(IMEC, 하이드로겔판(tám phim Hydrogel)기술을 이용하여 작물과 배양액을 격리시켜 재배하는 기술)기술을 적용해 영양소와 수분을 증가시키고 세균을 방지했다. 베트남에서는 이 기술 덕분에 일 년 내내 수확이 가능해 졌고 평균 1,000㎡당 4,000-6,000 그루를 재배 가능해 고밀도 재배가 가능하게 됨

○ 농업 및 농촌 개발부 까오 득 팻(Cao Đức Phát) 장관은 “대기업에서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인해 베트남이 가진 현대화된 농업이 통합 국제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함

○ 이를 위해, 특히 중심이 되는 최첨단 기술들과 같은 과학기술의 응용이 필요하며, 정보통신업체 FPT와 일본의 후지츠(Fujitsu)그룹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 까오 득 팻(Cao Đức Phát) 장관은 “점점 더 많은 베트남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농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농업은 고효율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농민들이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기업들의 지원 및 선도가 필요하다” 라고 밝힘



○ 테스트 단계를 마친 후, 정보통신업체 FPT 와 일본의 후지쯔(Fujitsu)그룹은 베트남에서 각 기업 및 조직들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낼 것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중앙은행, 신용기관 주요 통계지표 발표

○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신용기관들의 주요 통계지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15년 12월 신용기관들의 총 자산은 298조 2,980억 동(VND) 증가하여 7,319조 3,170억 동에 달했다. 그 중 국영은행의 총 자산은 130조 1,220억 동 증가하여 3,303조 9,950억 동에 달했고, 주식은행의 총 자산은 151조 1,350억 동 증가하여 2,928조 1,460억 동에 달함

○ 또 신용기관들의 자기자본은 18조 7,320억 동(VND) 증가하여 578조 200억 동이다. 그 중 국영은행의 자기자본은 13조 3,090억 동 증가하여 203조 3,280억 동이고, 주식은행의 자기자본은 6조 1,290억 동 증가하여 236조 3,420억 동임

○ 한편 신용기관들의 법정 자본금은 3,440억 동(VND)만 증가해 460조 2,790억 동에 달했다. 그 중 국영은행의 법정자본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주식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약간 증가하여 193조 9,770억 동임

○ 신용기관들의 자본안전 비율은 다소 증가해 13%에 달했다. 그 중 국영은행의 자본안전 비율은 0.3% 증가해 9.42%이고, 주식은행의 자본안전 비율은 전달 대비 0.05% 감소해 12.7%에 머물렀음

○ 2015년 12월 기준 신용기관들의 중장기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단기 예금의 비율은 전달 대비 2.07% 증가하여 31%이고, 이 비율은 국영은행의 경우 전달대비 2.34% 증가해 33.36%, 주식은행의 경우 2.35% 증가해 36.90%임

○ 주목할 만한 것은 국영은행 및 주식은행의 중장기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단기 예금의 비율(각각 33.36%, 36.90%)은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36/2014/TT-NHNN 호 통지 수정·보완에 대한 초안에 의한 상한선(40%) 가까이 왔다는 것임





○ 다른 한편으로 2015 년 11 월 말 기준 신용기관들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은 89.45%이다. 그 중 국영은행의 예대율은 98.36%에 달했고, 주식은행의 예대율은 79.68%에 달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호치민 시 버스 노선에 천연 가스 차량 도입, 이용자 유치에 기대

○ 호치민시에서 1 일, 압축 천연 가스(Compressed Natural Gas=CNG)을 사용한 버스(CNG 버스)가 노선 버스 33 번(혹몬군 안승 버스 터미널~국가 대학 간)에 도입됨. 이번에 시내 버스에 처음으로 1 개 노선 모든 차량에 CNG 버스를 도입하게 됨

○ 이날 사이공 교통 운수 기계 총공사(SAMCO)는 19/5 버스 운수 협동 조합에 CNG 버스 23 대를 인계함

○ 이 23 대는 33 번 및 104 번(안승 버스 터미널~농림 대학)의 2 노선에서 사용된다. 33 번에서는 앞으로 전 차량을 CNG 버스로 52 대로 늘릴 계획임

○ 이번 CNG 버스 도입으로 투자 총액은 630 억 VND. CNG 버스의 도입으로 최근 2 년간 급감한 시 버스 이용자 유치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2014 년 시내에서 운행하는 노후한 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의 교체와 함께 시내 버스 대수를 늘리기 위한 2017 년까지 CNG 버스 300 대를 포함한 버스 1680 대를 구입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함

○ 이번 CNG 버스 23 대는 SAMCO 가 동시 인민 위원회로부터 수주한 300 대 중 첫 버스임

\* 출처: Vinahanin.com, 03.03

### 총리, 2016년 GDP 성장률 목표 +7%로 상향 수정 지시

○ 응웬 쩌우 쩌우 베트남 수상은 2 월 29 일 열린 정부 월례 회의에서 2016 년 국내 총생산(GDP)성장률+7%달성을 목표로 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회가 설정한 목표인



플러스 6.7%를 올려 잡은 것을 의미함

- 2015 년 GDP 성장률은 과거 8 년간 최고인 +6.68%를 달성하며 국회의 목표 치 +6.2%를 크게 웃돌았다. 이것이 총리의 목표 수정의 근거임
- 정부 보고에 따르면 연초 2 개월의 거시 경제는 계속 안정되어 있다. 2 월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전월 대비+0.42%, 1~2 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 늘어난 237 억 USD 으로 수출 초과액은 약 8 억 6500 만 USD 에 이름
- 해외 직접 투자(FDI) 인가액도 크게 증가. 2 월 15 일까지 정부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2.4%증가함
- 총리는 "최근 2 개월, 경제 사회 상황은 모든 분야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농업에 대해서는 남부나 남 중부, 중부 고원 지방에서 가뭄과 해수 침입에 의한 피해, 북부에서는 냉해 대책을 집중적으로 실시 하도록 지시함

\* 출처: Vinahanin.com, 03.03

## 연초 2개월 소매 매출액 587조 VND, 전년 동기 대비+9.7% 증가

- 베트남 통계 총국(GSO)의 발표에 따르면 2 월 소매 매출액(추정치)은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비는 +4.2% 늘어난 287 조 9618 억 VND 이었다. 이로써 올 초 2 개월간 소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86 조 9678 억 VND 임
- 사업 분야별로 보면 ◇ 판매: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 호텔 식당:동 +8.0% 증가, ◇ 기타 서비스:동 +10.1% 증가, ◇ 관광:동 +9.2% 증가로 4 개 분야 모두 증가함

\* 출처: Vinahanin.com, 03.03

## 개정 형사법, 불륜 상대와 중혼, 동거에 최장 3년 금고형

- 2016 년 7 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 법(형사 법 2015 년판)에서는 불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예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 182 조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부부나 다름 없이 생활)결혼하는 기혼자, 또는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 동거나 결혼하는 미혼자 ◇ 불륜을 이유로 기혼자가



이혼한 경우 ◇ 일부 일처제에 관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경우, 1년 이내의 경고 처분 집행 유예 징역형, 3개월~1년간의 금고형을 부과함

○ 또한 ◇ 불륜을 이유로 자신 또는 상대 배우자 또는 아이가 자살한 경우 ◇ 법원에서 동거 정지 명령 또는 결혼 취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를 계속한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6개월~3년으로 늘어남

○ 또한 혼인 가족 법을 지도하는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사법부의 공동 통달 제 1호/2016/TTLT-TANDTC-VKSNDTC-BTP(2016년 3월 1일 시행)에서는 간통을 이유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도록 정해짐

\* 출처: Vinahanin.com, 03.02

## 노바이 라오까이 간 고속 도로와 사파 간 도로 건설 안전 착공

○ 서북부 지방 라오까이 성에서 27일 노바이(하노이시)~라오까이(라오까이 성)간 고속 도로와 동성 사파군을 잇는 도로 건설 안전 착공식을 거행했다. 이 안전은 BOT(건설·운영·양도)방식으로 건설하고 2019년 제 1분기에 완공될 전망이다

○ 이 안전은 길이 29km의 국도 4D호 라인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길이 22km 구간을 새로 건설함

○ 투자 총액은 2조 5180억 VND으로 투자자의 자기 자금 차입금 예산에서 출연된다. 투자자들은 통행 요금 징수에 의한 24년간 운영권을 갖고 회수함

○ 동부에서는 복수의 고급 리조트 안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에 이 고속 도로가 개통하면서 사파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여 교통량이 늘고 있지만, 국도 4D호선은 노퍽이 좁아 교통 사고나 정체도 잦아 이 안전의 전개가 시급해짐

\* 출처: Vinahanin.com, 03.01

## 베트남: 국내 시장은 봉제 산업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

○ 인구 9000만명을 거느리고 베트남 국내 시장은 섬유 분야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음



- 베트남 섬유 협회(VITAS) Vu Duc Giang 회장에 따르면 의류 제품의 연간 소비액은 30억 미 달러 정도임
- 그러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국내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20%에 불과하며 그러한 기업들도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중국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베트남 섬유 공단(Vinatex)Hoang Ve Dung 부사장은 "베트남 경제 시보"지에 봉제 산업은 국내 시장 개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많은 기업들이 품질 향상이나 자사 제품의 브랜드 명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지 않다고 함
- Dung 부사장은 봉제 산업은 구매력 향상 촉진 활동을 하거나 기업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슈퍼 마켓이나 소매점 판매망을 확대하고 국내 시장에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 베트남 섬유 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의 섬유 의류 제품의 소비액은 연간 10-15%의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봉제 분야의 2015년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은 35억 미국 달러에 이름

\* 출처: Vinahanin.com, 02.28

### 베트남:남부의 기업들 설 휴가 후 귀향으로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

- 호치민시와 그 외 남부의 성에서 테트(설날) 연휴 후 의류 신발류, 목재 가공이나 전자 기기 등의 산업에서 수 천명의 근로자들을 필요로 함
- 동나이 성 노동국에 따르면 500 여개 기업이 테트 후 초에 총 3 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중 외국계 기업(FDI)에서는 2 만 5000 명의 종업원을 요구하고 있음
- 고용 수요는 의류 신발류, 목재 가공의 분야의 Taekwang Vina 사, Changshin 베트남사, Pousung 베트남사를 포함 많은 기업들이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 올해 일자리 수요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0%의 증가를 보인다고 동나이 성 노동국의 Pham Van Cong 부국장은 말함



## 대한상공회의소

- 동나이 성 고용 서비스 센터의 Huynh Ngoc Long 소장은 기업의 고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2월 25일 올해 첫 구인구직 페어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함
- Long 소장은 남부의 고용 수급의 어려움은 북부 및 중부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자택 인근 공단에서 일하기를 원하여 (남부)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그는 노동자들은 연초 이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각사 사업 확장 때문에 인력을 새로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기업들에서는 4월에 신규 수주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남부 빈증성에서는 올해 110여개 기업이 그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약 2만명의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음
- 지방 노동 연합의 Bui Thanh Nhan 부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89% 이상의 노동자가 휴가에서 직장에 복귀하고 화요일에 조업을 재개했다고 말함
- 빈증 성 노동국에 따르면 올해 테트 휴가 후, 귀향한 근로자 수는 예년보다 감소한 것임
- 지난해는 테트 휴가에 의해 15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거 귀향한 반면 올해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며, 그 때문에 성 노동 시장은 휴가 후에도 안정적이라는 것임
- 호치민시 인재 수요 예측·노동 시장 정보 센터의 Tran Anh Tuan 의 센터장은 호치민시에 있는 기업들은 테트 휴가 후에 1만 90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 1만 9000명의 일자리 가운데 30%는 파트 타임이나 계절 고용인 대부분으로 마케팅, 판매, 관광 서비스, 가사 노동,接客, 건설, 기타 분야 종사자들 임
- Tan Binh 공단에 있는 Tien Loi 봉제 회사의 Nguyen Thanh Hung 사장은 설을 맞기 위해 귀향하는 종업원을 위해 무료 버스를 제공하고 휴일 후에 종업원들이 일하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지급했으나 결과적으로 단 70%의 종업원들만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회사의 생산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함
- 또 이 회사는 대형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50명의 노동자들이 더 필요로 하지만 아직 고용할 수 없었다고 밝힘



- 휴일 전후에 지불한 보너스 덕분에 올해 약 85%의 노동자가 업무에 복귀하고 호치민시의 휴가 후의 노동자 부족은 예년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함
- 설 연휴 이후 노동력 부족은 종업원 퇴직자 수의 3~4%, 총 고용자 수의 6~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Tuan 의 센터장은 말함

\* 출처: Vinahanin.com, 02.28

##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중앙 은행에 대출 규제 재검토 요구

-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는 회복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출의 긴축 조치를 재고해 주도록 베트남 국영 은행에 요구함
- HOREA 는 서면에서 아직 부동산 버블의 징후는 없고 대출 규정의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5 일자 타인 니엔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함
- 중앙 은행은 중장기 대출에 충당되는 단기 예금 한도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의 위험 지수를 현행 150%에서 250%로 끌어올릴 전망으로 이 조치는 개정 은행 법의 일부로 승인되면 내년부터 발효됨
- 중앙 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여 대출 규제에 손을 댔다. 2015 년 부동산 대출 잔액은 360 조동(약 158 억 7000 만달러)에 이르며 전년 대비 18%증가했다. 2012~14 년 증가율은 평균 14~15%임
- 그러나 HOREA 는 장기 침체 후 2013 년 말부터 회복된 점을 감안하면 대출 증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 게다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한 투기적 움직임은 적다고 지적함
- 이 협회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부동산 시장 전체의 투기꾼들의 비율은 버블 때의 2007 년이 약 70%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15%임
- 베트남의 부동산은 많은 것을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출의 긴축이 개발 업자나 투자자가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HOREA 는 전함
- 개발 업자나 투자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낄다며 긴축 조치를 불안해 하고 있다. 호치민시의 레 타인 부동산 회사의 사장은 개정 법의 적용으로 대출이 적어도 30% 감소 한다고 밝힘

\* 출처: Vinahanin.com, 02.28



## 탄력받는 베트남 경제...올해 성장률 목표 7%로 상향

- 올해 세계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1 일 베트남 정부 소식지에 따르면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종전 6.7%에서 약 7%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함
- 지난해 베트남의 성장률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7%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 6.2%를 크게 웃돌았음
- 베트남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연초부터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승인액 기준)는 1~2 월 약 28 억 달러(약 3 조 4 천 622 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함
- 올해 들어 2 개월간 산업생산지수(IIP)는 작년 동기보다 6% 넘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창업 기업은 1 만 3 천 904 개로 약 1% 늘었음
- 국제기구도 베트남 경제에 대해 낙관적임.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베트남이 6.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ADB 가 제시한 45 개 아시아 신흥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6.0%보다 높은 수준임
- 영국 경제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베트남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6.8%, 6.9%임
- 세계 경제가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약세 등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외국인 투자 증가, 수출 증대 등에 힘입어 올해 6.5~7.0%로 전망되는 중국의 성장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 총리는 외국인 자금 유치 확대와 사회·경제 개발을 위해 투자 환경 개선과 제도 개혁을 정부 부처·기관에 지시함
- 베트남은 앞으로 5 년간 6.5~7.0%의 성장률을 달성해 국민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현재 2 천 달러 수준에서 2020 년 3 천 200~3 천 500 달러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3.01



**염해로 벤제 성 공단에서는 생산 용수 부족, 식품·수산업 큰 타격**

- Ben Tre 성에서는 최근 몇달, 성 전역의 하천 염분 농도가 1~4%에 이르고 공단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급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성공단 관리 위원회 Dang Tuy Phong 부위원장에 따르면 생산용 물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Giao Long 공단의 식품 가공, 수산, 보일러를 사용하는 공장들로 많은 기업들이 Ben Tre 성 위생국에서 급수차로 물을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응으로 생산은 유지하고 있지만 원활한 공장 가동에는 부족해서 감산을 피할 수 없음
- Giao Long 공단에 급수하는 Huu Dinh 정수장은 풀 가동되고 있지만, 염분 농도 0.7~1%의 처리에만 대응 못하고"염분 농도가 높아 처리되어도 그 이상 농도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Nguyen Van Binh 소장은 말함
- 반면 Ben Tre 성 위생처리 업체의 Nguyen Thi Diem Phuong 사장에 따르면 자사의 급수차 외, 타사로부터 차를 빌려 Giao Long 공단의 식품 공장에 담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성의 염해는 갈수록 심해져, 3 월에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An Hiep 정수장에 원수를 도입하여 하루 4 만 7,000 m<sup>3</sup>의 능력을 가진 Cai Co 펌프실이 3 월 중에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An Hiep 정수장은 5 월에 운전 개시 예정으로, 염해의 해결은 그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함

\* 출처: Vinahanin.com, 02.28

**2월 전국 CPI 전월 대비+0.42%, 테트용 구매력 증가로**

- 베트남 통계 총국(GSO)의 발표에 따르면 2016 년 2 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2%, 전년 동월비는 +1.27%상승했다. 테트(설날)전용 구매력이 증가한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 2 월 전월 대비 CPI 을 품목별로 보면 11 개 품목 중 8 개 품목이 상승. 그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식료품 음료 서비스"(+1.98%)로 그 중에서 "식료"가 +2.45%, "식량"이 +0.66%, "음식 서비스"가 +1.45% 상승했다. 돼지 고기, 쇠고기, 닭고기, 생선, 야채 등의 식량 가격 상승률은 전월의 8 배가 됨





- 한편 전달 보다 떨어진 것은 3 개 부분으로 세계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유가도 연속 인하 되면서 "교통"이 ▲ 3.96%인하. 또 ◇"주택, 전기, 수도, 연료, 건설 자재"가 ▲ 0.41%, ◇"우편 통신"이 ▲ 0.16% 떨어짐
- \* 출처: Vinahanin.com, 02.27

### 화빙(Hòa Bình)성, 투자자 유치 위해 50헥타르 토지 준비

- 응웬 반 폭(Nguyễn Văn Phúc) 화빙성 공업단지 관리부서장에 따르면, 현재 관리부는 공단 인프라 임대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절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지방의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2016 년 부터 공단 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인프라 투자 브리핑 진행 상황을 목표로 제작하여 2016 년 안에 50 헥타르에 이르는 토지를 준비하여 투자에 대비하기로 했으며, 특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인한 섬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함
- 기업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전기 공급,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 훈련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며 르엉선(Luong Son)공단에 세관, 소방시설 등을 설립하여 기업들에 각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에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함
- 당 중앙위원회 위원 소속이며 화빙 성 당 서기장이자, 화빙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부이 반 평(Bùi Văn Tỉnh)은 “지방의 모든 분야의 부서는 구조, 정책 검토에 집중해 투자자를 위한 행정 절차에 대한 시간을 최대한 축소해야하며 대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체재를 구현해야만 함
- 또 조사와 검사를 통해 기업을 괴롭히고, 커미션을 요구하는 여러 행위 형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질것이다” 라고 강조함
- 또 평 위원장은 공단 관리부에 인프라 투자 공업, 산업 단지에 대한 자원 할당 연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토지의 준비를 요청했고 투자자가 생산, 영업 시설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아낌없이 최고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함



## 대한상공회의소

- 이와 함께 투자 촉진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무역 및 관광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와 지방 프로젝트 전개 시 투자에 대한 설명을 전하고, 투자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투자자들에게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달라고 전함
- 또 인민위원회와 연관된 부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조 정책에 대해서 각 부서가 연계하여 연구를 통한 제거를 요청함
- 이어 그는 “북서쪽에 위치한 지방이자 수도 하노이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화빙 성은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획기적인 투자 유치에 되지 않고 있는 지방이기도 하다” 고 밝힘
- 실제로 2015년 총 31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승인서가 발급되었는데 이중 4개의 프로젝트는 FDI(외국인직접투자)프로젝트였으며, 등록된 총 자본금은 400만 달러였다. 이외 27개의 프로젝트는 국내 투자 프로젝트로 총 자본금 2조 5490억 동을 기록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이 많이 하락함
- 2015년 지방 전체 총 프로젝트 421개 중 FDI 프로젝트는 31개로 등록된 총 자본금은 4억 6800만 달러, 사용 토지 면적은 670헥타르이며 나머지 389개의 국내 프로젝트의 등록된 총 자본금은 45조 9,750억 동, 사용 토지 면적은 36,000헥타르였다. 토지 보상의 경우 21,000헥타르의 면적을 보상하여 총 면적 대비 55.2%를 차지함
- 특히, 르엉선 공업 단지 지역은 28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13개의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 총 자본 등록금액 2억 3,27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5개의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총 자본금 등록금액 2조 7,000억 동에 달했다. 토지 면적 같은 경우 현재 82%가 사용된 상태라고 전했으며, 대부분 상업 토지 면적이라고 밝힘
- 화빙 성 투자계획국 국장인 부이 득 형(Bùi Đức Hình)은 “투자 유치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기술 인프라와 각 공업, 산업단지가 동기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지연되는 행정 절차는 투자자들을 낙담시키고 투자 유치 병목 현상이 생기는 이유이며, 수도 하노이와 가까이 있는 위치적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화빙 성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구조 정책이 충분치 않음
-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행정 절차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고 강조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짜빈 풍력 발전소 기공식

○ 짜빈(Trà Vinh)성 주웬하이(Duyên Hải)읍에 있는 짜빈 풍력발전소(Điện gió Trà Vinh) 유한책임회사가 지난 2월 24일 한국-짜빈 풍력 발전소(1 단계) 기공식 행사를 개최함

○ 한국-짜빈 풍력 발전소(Korea-Tra Vinh 풍력 발전소)의 1 단계 프로젝트는 발전량이 48MW 이고, 투자금액이 1억 3천만 달러(USD) 규모로 1,213ha(수면 면적이 1,209ha, 육상 면적이 2,14ha)의 부지면적에 건설할 예정임

○ 이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2017년 2월에 완공하여 연간 173,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임

○ 짜빈(Trà Vinh)성 인민위원회의 쩐아잉중(Trần Anh Dũng) 부위원장에 따르면 짜빈성은 6.0~6.8m/sec 이상의 일정한 풍향을 가지고 있어 풍력발전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풍력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1,600MW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 이처럼 짜빈성은 풍력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짜빈성에서는 한국-짜빈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완공 후 현지의 고용창출,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감면세 기간 만료 후 연간 납부액이 300억~400억 동/VND 예정), 관광객 유치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앞서 베트남 상공부는 짜빈성의 2030년을 고려하는 2020년까지의 풍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승인했다.

○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짜빈성의 총 시설용량은 270MW 이고, 풍력 발전량은 6억 3천 4백만 kWh 임

○ 짜빈성에서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면적이 7,620ha 규모에 달하는 6개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지원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정책 안내

○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5/11/3 일자, 111/2015/NĐ-CP 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분야에 대한 대출정책 안내에 관한 2016/2/4 일자, 01/2016/TT-NHNN 호 통지를 발표함

○ 이 통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111/2015/NĐ-CP 호 시행령의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 보조 제품 개발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과 해외은행 지점

(2) 지원산업 제품개발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품목에 대한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대출받는 고객(개인 및 조직)

(3) 111/2015/NĐ-CP 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 관련자(개인 및 조직)

○ 위 중앙은행의 01/2016/TT-NHNN 호 통지에 의하면 지원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정책 및 대출원칙은 아래와 같음

- 지원산업 제품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금리(VND 대출금리)는 중앙은행 총재가 시기별로 결정하는 경제의 특정분야에 대한 단기금리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은 지원산업 제품개발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품목에 대한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111/2015/NĐ-CP 호 시행령의 12 조, 2 항, a)점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지원산업 제품 개발 생산 프로젝트는 대출을 받기 위해 111/2015/NĐ-CP 호 시행령의 11 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과 해외은행 지점들은 01/2016/TT-NHNN 호 통지의 제 3 조의 1 항, 2 항 및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산업 제품 개발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결정하고, 자기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위 중앙은행의 01/2016/TT-NHNN 호 통지는 2016 년 2 월 22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이 통지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계약 만료 날까지 계약 내용대로 진행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

### 베트남 정부 자동차 산업 개발 정책 발표

○ 최근 정부 총리는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개발계획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 총리의 결정에서는 ‘2025 년 베트남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35 년 비전’ 및 ‘2020 년 베트남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및 2030 년 비전’ 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 그 정책과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설비투자 지원, 자동차 수요촉진, 자동차 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정부총리의 결정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기업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자동차(전용차를 포함) 생산·조립을 위한 생산 기계설비 또는 생산라인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국가 투자개발 신용대출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자동차 기업은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CBU) 공급망에 참가할 때 현행규정에 따라 수출신용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 국내 자동차 기업은 국가가 생산을 장려하는 차량을 생산할 때 국가 무역촉진 프로그램에 따라 무역촉진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개인이나 조직이 농업 및 농촌 분야에서 사용되는 3 톤 이하 화물트럭과 농업 전용차를 구입할 때 2013/11/14 일자, 68/2013/QĐ-TTg 호 총리의 결정서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가에서 생산을 장려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분야 또는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서 그 차량(완성차)을 수입하거나 국제입찰을 통해 구입할 때 차량 구입금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세제 혜택, 토지임대료 혜택 등의 정책



## 대한상공회의소

- 한편 정부 총리의 결정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또는 첨단기술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 및 자동차 생산·조립 공장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설비 시설 등을 수입할 때 투자법률 및 수출입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변속기, 엔진, 기어 및 기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수량 및 품질이 보장될 때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른 수입관세 상한선으로 수입관세를 부과시킴
- 또 국가가 생산을 장려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른 수입관세 상한선으로 수입관세를 부과시킴
- 정부 총리의 결정에 의하면 국가가 생산을 장려하는 차량의 생산규모는 연간 50,000 대이다. 변속기, 엔진, 기어 및 기타 핵심 부품에 대한 생산규모는 정부 총리에 의해 별도로 규정함
- 그 외에 자동차 부품생산 프로젝트는 지원산업(supported industry)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국가가 생산을 장려하는 차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및 변속기, 엔진, 기어 등 핵심 부품의 생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토지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2